

수치해석에 의한 직매형 앵커기초의 인장 설계기준 평가

Tensile Design Criteria Evaluation of Cast-In-Place Anchor by Numerical Analysis

장 정 범* 서 용 표** 이 종 림***
Jang, Jung-Bum Suh, Yong-Pyo Lee, Jong-Rim

ABSTRACT

Numerical analysis i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sign codes that is available for the tensile design of fastening system at Nuclear Power Plant (NPP) in this study. This study is intended for the cast-in-place anchor that is widely used for the fastening of equipment in Korean NPPs. The microplane model and the elastic-perfectly plastic model are employed for the quasi-brittle material like concrete and for the ductile material like anchor bolt as constitutive model for numerical analysis and smeared crack model is employed for the crack and damage phenomena. The developed numerical model is verified on a basis of the various test data of cast-in-place anchor. The appropriateness of both ACI 349 Code and CCD approach of CEB-FIP Code is evaluated for the tensile design of cast-in-place anchor and it is proved that both design codes give a conservative results compared with real tensile capacity of cast-in-place anchor.

1. 서 론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에 설치되는 기기, 배관 및 전기설비 등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정착하기 위한 앵커기초는 ACI 349-97 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왔다. 그러나, 유럽에서 수행된 많은 앵커기초의 성능평가 관련 시험결과들과 CEB-FIP Code 의 CCD 방법이 ACI 349-97 에 의하여 설계된 앵커기초가 일부 경우에 대해 실제 성능보다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¹⁾⁽²⁾⁽³⁾⁽⁴⁾ 이에 따라 앵커기초의 성능이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ACI 349-97 이 2001 년도에 CEB-FIP Code 의 CCD 방법을 근거로 개정되었다.⁽⁵⁾

그러나, 개정된 ACI 349-01 의 적용범위가 앵커볼트의 직경이 2 in. 이하이고, 유효매입깊이가 25 in. 이하인 앵커기초로 한정됨에 따라 격납건물 내 주요 기기들, 즉 PZR, SG, RCP 및 RV 등에 요구되는 대형 직매형 앵커기초에는 ACI 349 의 적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 NRC 가 발행한 SRP 3.8.4 의 Appendix E (Draft, Rev.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경우별로 실증시험결과에 일치하는 설계방법을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원전 내 설치되는 수많은 대형 앵커기초에 대해 각각 실증시험을 수행하여 실증시험결과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다양한 경우의 직매형 앵커기초에 대한 실증시험결과에 일치하는 수치해석모델을 개발하고 그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검증된 수치해석모델과 앵커볼트의 유효매입깊이를 해석변수로 하여 직매형 앵커기초의 인장설계를 위한 ACI 349 Code 및 CEB-FIP Code 의 CCD 방법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 정회원 ·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수석연구원

2. 설계기준

2.1 ACI 349 Code⁽⁶⁾

인장하중하에서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된 앵커기초의 기본 콘크리트 파괴강도, N_b 는 식 (2.1) 과 같으며, 공칭 콘크리트 파괴강도, N_{cb} 는 식 (2.2) 와 같다.

$$N_b = k \sqrt{f_c} h_{ef}^{1.5} lb \quad (2.1)$$

$$N_{cb} = \frac{A_N}{A_{M0}} \psi_1 \psi_2 \psi_3 N_b \quad lb \quad (2.2)$$

여기서 k 는 직매형 앵커기초의 경우 24 이다. A_N 은 앵커볼트의 중심으로부터 $1.5h_{ef}$ 만큼 한쪽 외부 방향으로 파괴가 발생하는 단일 및 다중 앵커기초의 파괴 투영면적을 나타내며, A_{M0} 는 콘크리트의 연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단일 앵커기초의 파괴 투영면적으로 식 (2.3) 과 같다.

$$A_{M0} = 9h_{ef}^2 \quad (2.3)$$

식 (2.2) 에서 ψ_1 은 편심하중을 받는 다중 앵커기초의 수정계수이고, ψ_2 는 콘크리트 연단과 앵커볼트 사이의 거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정계수를 나타내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치 않는다. ψ_3 는 균열발생에 따른 수정계수로서 사용하중조건인 설계하중 조합하에서 균열이 나타나지 않는 ($f_t < f_r$) 콘크리트 부재에 앵커볼트가 설치된 경우, 직매형 앵커기초의 수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psi_3 = 1.25 \quad (2.4)$$

그러나, 사용하중조건인 설계하중 조합하에서 콘크리트 부재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ψ_3 는 1.0 이 적용된다.

2.2 CEB-FIP Code 의 CCD 방법⁽⁷⁾

균열 콘크리트 부재에서 외부영향이 없는 단일 앵커기초의 경우, 기본 콘크리트 파괴강도, N_{M0} 는 식 (2.5) 와 같으며, 공칭 콘크리트 파괴강도, N_N 는 식 (2.6) 과 같다.

$$N_{M0} = k_1 \sqrt{f_c} h_{ef}^{1.5} N \quad (2.5)$$

$$N_N = \frac{A_N}{A_{M0}} \psi_1 \psi_2 \psi_3 \psi_4 N_{M0} \quad N \quad (2.6)$$

여기서, k_1 은 직매형 앵커기초의 경우 9 이다.

식 (2.6) 에서 $\psi_1, \psi_2, \psi_3, A_N$ 및 A_{M0} 는 상기 2.1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ACI 349 Code 와 동일하
나, 단 ψ_3 의 수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psi_3 = 1.4 \quad (2.7)$$

그러나, 콘크리트 부재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ψ_3 는 1.0 이 적용된다.

ψ_4 는 Shell spalling factor 이나 무근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3. 수치해석

3.1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는 직매형 앵커기초의 인장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일 Stuttgart
대학에서 개발한 MASA 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⁸⁾ MASA 3 프로그램은 콘크리트와 같은 유사 취성재료
(Quasi-brittle material) 로 이루어진 구조물의 비선형 해석을 위한 3 차원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대상인 직매형 앵커기초의 모델링을 위하여 콘크리트와 같은 유사 취성재료는 Microplane model
을, 철근이나 앵커볼트와 같은 연성재료는 탄성-완전 소성모델 (Elastic-perfectly plastic model) 을 파괴
기준으로서 적용하였다.⁽⁹⁾⁽¹⁰⁾

Microplane model 은 콘크리트의 실제적인 모델링을 위하여 그림 3.1 과 같이 수직변형률 (ϵ_N) 은
Volumetric part (ϵ_V) 와 Deviatoric part (ϵ_D) 로 구분되며, 전단변형률 (ϵ_T) 은 상호 수직성분인
 ϵ_M 과 ϵ_K 로 구분된다. Microplane 모델의 응력 및 변형률 관계는 그림 3.2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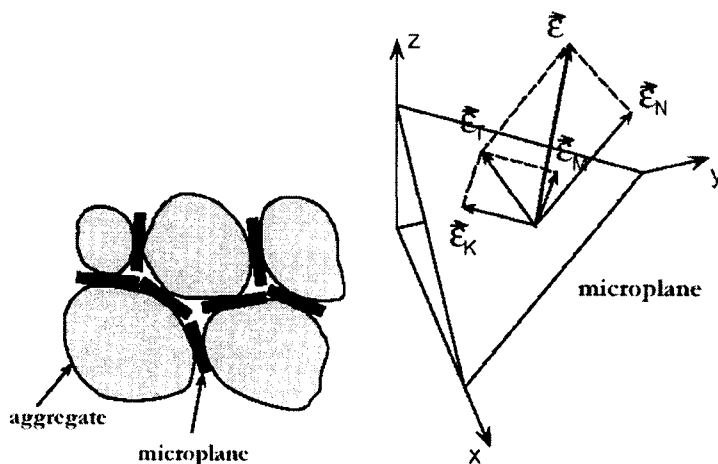


그림 3.1 Microplane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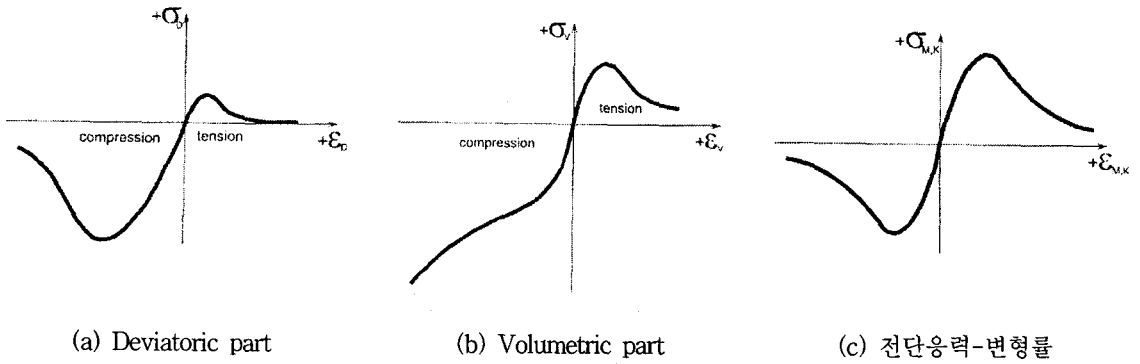


그림 3.2 Microplane 모델의 응력-변형률 관계도

철근이나 앵커볼트와 같은 연성재료를 위한 탄성-완전 소성모델의 응력-변형률 특성은 그림 3.3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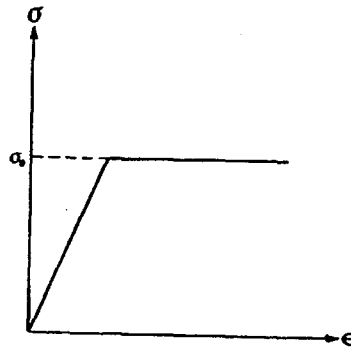


그림 3.3 탄성-완전 소성모델의 응력-변형률도

하중의 작용에 따라 직매형 앵커기초에 발생하는 균열현상을 모사하기 위하여 Smeared cracking model 을 채택하였고, 전형적인 Smeared cracking model 의 단점인 요소 크기에 따라 민감하게 나타나는 해석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Crack band method 의 일종인 Stress relaxation method 를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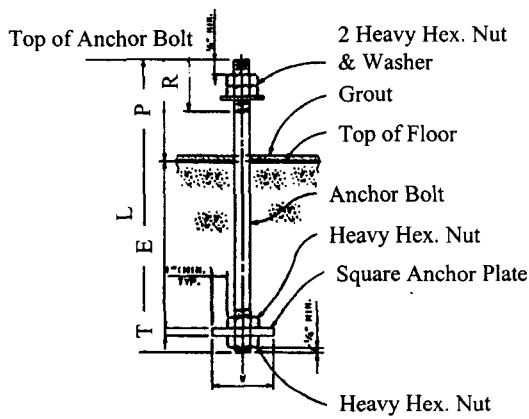
3.2 수치해석모델의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치해석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에 직매형 앵커기초를 대상으로 수행된 다양한 경우의 실증시험과 동일한 시험조건, 즉 콘크리트 시험체 및 앵커볼트의 제원, 재료특성, 하중 및 경계조건 등을 반영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표 3.1 은 기존에 수행되었던 시험조건과 그에 따른 콘크리트 파괴장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3.4 는 본 연구대상인 직매형 앵커기초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 의 각 시험조건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직매형 앵커기초를 구성하는 콘크리트, 앵커볼트 및 Square anchor plate 는 4 절점 고체요소로 모델링하였으며, 모든 시험조건이 앵커볼트를 중심으로 대칭면을 형성하므로 반단면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5 는 표 3.1 의 시험조건 중 시험조건 1 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수치해석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 시험조건

시험 조건	하중조건	앵커볼트의 유효매입깊이 (cm)	단일 및 다중앵커	앵커볼트와 콘크리트 연단사이의 거리 (cm)	콘크리트 파괴강도 (tonf)	비 고
1	인장하중	20	단일앵커	중앙부	33.8	앵커볼트 간의 거리 : 20 cm
2		20	다중앵커		58.4	
3		30	단일앵커	15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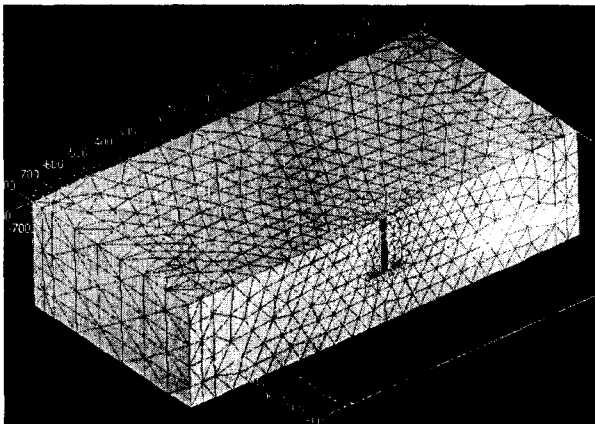


(a) 표준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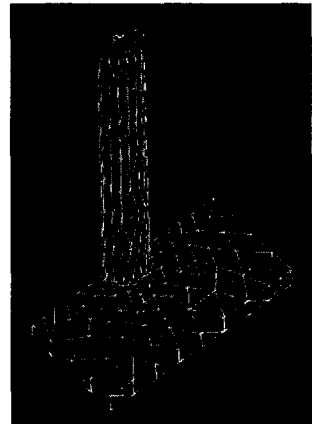


(b) 앵커볼트

그림 3.4 직매형 앵커기초



(a) 전체 수치해석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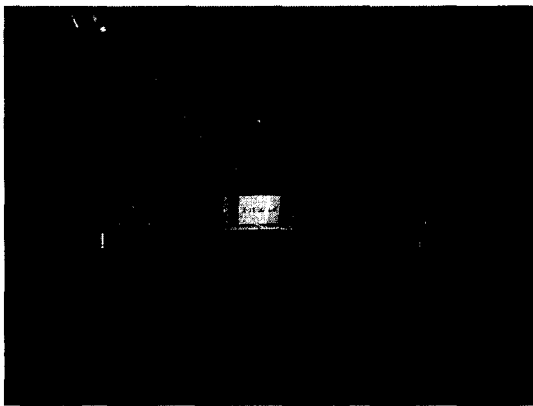
(b) 앵커볼트 및 Square anchor plate

그림 3.5 수치해석모델

수치해석결과, 표 3.2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치해석에 의한 직매형 앵커기초의 콘크리트 파괴강도가 시험결과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직매형 앵커기초의 파괴형상도 그림 3.6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본 연구의 수치해석이 실제 파괴형상을 거의 정확히 표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증된 수치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직매형 앵커기초의 인장 설계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 직매형 앵커기초의 콘크리트 파괴강도 비교

시험조건	시험결과 (tonf)	수치해석결과 (tonf)	차이 (%)
1	33.8	33.3	1.5
2	58.4	55.5	5.0
3	33.4	32.9	1.5



(a) 시험결과



(b) 수치해석결과

그림 3.6 직매형 앵커기초의 콘크리트 파괴형상

3.3 수치해석결과

상기 3.2 절에서 검증된 수치해석모델을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직매형 앵커기초의 인장 설계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한 ACI 349 Code 와 CEB-FIP Code 의 CCD 방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해석변수로서는 ACI 349 Code 의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각 설계기준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앵커볼트의 직경이 2 in. (5.08 cm) 와 유효매입깊이가 25 in. (63.5 cm) 를 초과하는 경우도 고려하였다. 표 3.3 은 수치해석에 고려된 해석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표 3.3 수치해석조건

해석조건	앵커볼트의 유효매입깊이 (cm)	앵커볼트의 직경 (cm)	비 고
1	5	1.9	ACI 349 Code 의 적용범위
2	10	1.9	
3	20	2.9	
4	30	4.1	
5	64	7.0	ACI 349 Code 의 비적용범위
6	89	9.5	

그림 3.7 은 직매형 앵커기초의 콘크리트 파괴강도에 대한 수치해석결과와 ACI 349 Code 및 CEB-FIP Code 의 CCD 방법에 의한 설계결과를 비교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CI 349 Code 및 CEB-FIP Code 의 CCD 방법은 모든 경우에 대해 상호 일치하는 설계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설계기준 들은 수치해석결과에 비해 보수적인 설계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CI 349 Code 가 앵커볼 트의 직경 2 in. 와 유효매입깊이 25 in. 미만의 직매형 앵커기초로 적용상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이상 의 직매형 앵커기초에 대한 인장설계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앵커볼트의 유효매입깊이 가 증가할수록 각 설계기준에 의한 설계결과가 수치해석결과와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원전의 최적 설계와 이 에 따른 경제성 제고를 고려할 때 이들 설계기준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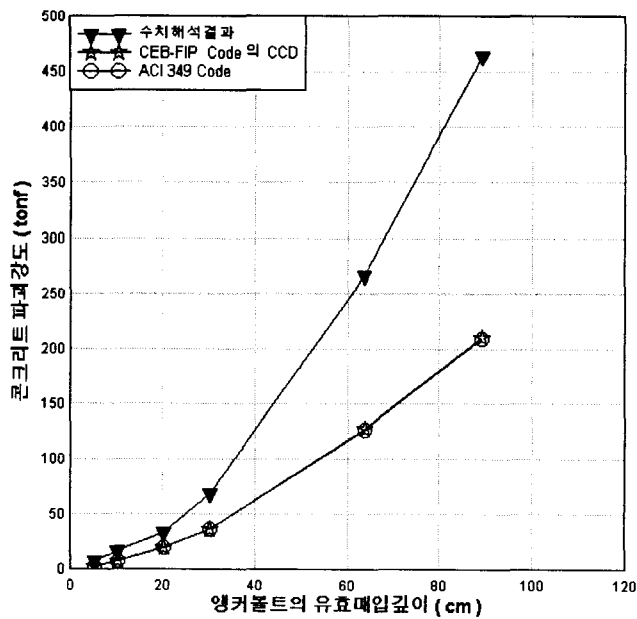


그림 3.7 수치해석결과와 각 설계기준의 설계결과 비교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전의 기기기초용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직매형 앵커기초에 대한 인장 설계기준인 ACI 349 Code 와 CEB-FIP Code 의 CCD 방법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설계기준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에 수행된 다양한 경우의 직매형 앵커기초에 대한 실증시험결과에 일치하는 수치해석모델을 개발하고 그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검증된 수치해석모델과 앵커볼트의 유효매입깊이를 해석변수로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결과, ACI 349 Code 와 CEB-FIP Code 의 CCD 방법은 모든 경우에 대하여 수치해석결과에 비해 보수적인 설계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ACI 349 Code 의 제한범위인 앵커볼트의 직경 2 in. 와 유효매입깊이 25 in. 이상의 직매형 앵커기초에 대한 인장설계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사업의 일부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Fuchs, W., Eligehausen, R., & Breen, J.E. " Concrete Capacity Design (CCD) Approach for Fastening to Concrete ", *ACI Structural Journal*, V. 92, No. 1, 1995.
2. 장정범, 서용표, 이종립, " 직매형 앵커기초의 설계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제 23 권 6A 호, 2003, pp. 1331-1338.
3. 장정범, 서용표, 이종립, " 직매형 앵커기초의 설계기준 개선 ", 한국원자력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경주, 2003.
4. 장정범, 서용표, 이종립, " 원전 기기기초의 최적설계를 위한 인장성능 평가기준 제안 ",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대구, 2003.
5. ACI 349, *Code Requirements for Nuclear-Safety-Related Concrete Structures*, 2001.
6. US NRC, " Standard Review Plan 3.8.4 - Other Seismic Category I Structures ", *NUREG-0800*, 1996.
7. CEB Task Group, *Design of Fastenings in Concrete*, Design guide, 1996.
8. Ozbolt, J., MASA 3 (Finite element program for 3D nonlinear analysis of concrete and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2003.
9. Ozbolt, J., Li, Y., Kozar, I., " Microplane model for concrete with relaxed kinematic constraint ", *Int. J. of Solids and Structures* 38, 2001, pp. 2683 - 2711.
10. Chen, W.F., *Plasticity in Reinforced Concrete*, McGraw-Hill, 1982.